

## 국내동향

## 國產기계 購入 · 리스 外貨貸出 허용

오는 7월부터 국산기계를 구입하는 기업이나 임대 목적으로 국산기계를 구입하는 리스회사에 모두 25억달러 규모의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또 상반기 중 우수품질마크(EM)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이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자본재산업 육성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통산부는 국산기계 구입 및 리스용에 대한 외화대출을 위해 상반기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기업

으로부터 자금용자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대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외화대출은 우수품질마크제품과 국산화 전략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또 기계류 및 산업설비에 대한 연불수출자금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1조원 늘어난 3조 4, 200억원으로 확정, 외화가득률이 높은 자본재품목을 우선지원하고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 對外經協基金 지원조건 개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규모·조건 등을 OECD의 권고기준에 맞춰 대폭 확대 및 개선,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외무부·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EDCF 운용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EDCF의 평균 지원조건을 현행 평균 상환기간 20.5년(거치기간 5.2년 포함), 금리 연 3.2%에서 29년(8.8년), 2.4%로 조정했다.

이를 수혜국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평균 지원조건인 29년(10년), 연 2.7%와 비교해 볼 때 상환기간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금리에서는 유리

한 조건이다.

정부는 그동안 EDCF를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의 5개 개도국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아프리카·중남미·서남아·구소련지역등지의 특정개도국들을 추가, 중점지원국가를 10여개로 늘렸다.

특히 국민총생산(GNP) 대비 공적원조의 지원비중(인출액 기준)을 현행 0.04%에서 OECD 25개 회원국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수준(0.15%)까지 끌어 올려야 하는 현실을 감안, 올해 EDCF 지원규모(승인액 기준)을 4억 달러로 예년에 비해 배이상 늘렸다.

이를 위해 정부는 EDCF 지원과 관련, 그동안 설정했던 사업당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중점지원

사업도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부문 인프라 구축사업에다 환경관련사업, 과학기술연구기관 형성사

업, 엔지니어링사업등을 추가했다.

##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 개정

통상산업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단체수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해 지정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에게 능력에 따른 공정한 물량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을 개정,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 단체수의계약 수혜기준상 물량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품질수준 향상 및 신기술개발 항목에 배점을 높게 책정

▲ 품질수준 향상 항목에서 ISO 9000 시리즈 획득, EM 마크 제품, 100PPM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 수행기업을 추가하고, 신기술개발 항목에서 NT마크 및 KT마크 표시업체를 추가하고

▲ 또한 특정업체의 계약물량 독점화를 방지하

므로서 수혜중소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개 물품에 대한 동일업체 배정비율을 연간 총 계약실적의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중소기업자의 생산능력부족 및 구매기관의 요구사항 충족 등 불가피한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연간 총계약의 20% 범위내에서 허용해 오던 것을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 물품의 특성에 따라 조합원간 차등화 및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물량배정의 배점기준을 각 항목별로 10% 범위내에서 조합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세부물품별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중소 품질경영褒賞기회 확대

통상산업부는 품질경영활동을 전 산업계에 확산·보급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상포상기회를 확대하고 유통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포상신청절차 및 심사방법을 간소화했다.

또 ISO 9000인증 업체 등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과 관련,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는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통산부는 그동안 舊공업진흥청에서 시행해오던 품질경영우수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올해부터 통산부 주관하에 실시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품질경영상 포상요령을 공고했다.

포상요령에 따르면 산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혁신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ISO 9000인증, KS마

크, AS마크, NT마크, KT마크, EM마크, 100PPM 등 기술 및 품질관련 국가인증 획득업체 및 그 종업원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산점을 주어 우대키로 했다.

또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경영진단기관에서 경영진단을 받은 업체 및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우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분규 빈발업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업체 등은 평가에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유공자 훈포상과 관련해서도 상훈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산재율이 높은 경우, 중대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그 임직원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기로 했다.

특히 품질경영활동을 산업경쟁력 제고의 효과적인 실천수단으로 전 산업계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신청서류 및 심사방법을 간소화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포상비율을 높였다.

또 현장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포상대상 업종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건설업, 유통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청자격 요건도 크게 완화해 한국품질대상의 경우에만 품질경영상을 수상후 3년이상 품질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업체로 제한하되, 기타 기업체부문상은 국내기업 또는 국내소재 외국기업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업체부문의 포상과 관련 100PPM상과 제안우수기업상을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에 기여한 업체 및 단체에 수여하는 산업표준화상과 소비자보호 체제의 구축 및 그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소비자보호 우수기업상을 신설했다.

## 기술개발제품 購買확대

앞으로 기술개발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구매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내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신기술제품(KT)이나 환경표시(E)제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과 '폼' 마크를 획득한 제품도 지정경쟁 입찰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우대해주고 수요기관이 요구한 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

로 대체가 가능하면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품을 기술개발품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본청과 전국의 지청에 '기술개발제품 종합안내상담창구'를 개설, 기술개발제품 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 해당업체와 수요기관을 연결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전략 기술개발업체가 공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 신기술상품 표시제품(KT) 기계류와 부품 가운데 품질인증제품(EM)은 정부조달 우선구매품목으로 인정하도록 재정경제원에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 하도급 物品代 우선 지급업체 우대

하도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업체는 정부조달 입찰에서 최고 2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받음에 따라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하도급 전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물품대금 5억원 이상, 납기 6개월이 넘는 물품의 입찰참가 업체 가운데 협력업체에 대해 계약금액을 5% 이상 지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0.5점에서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받

도록 했다.

또 제조업관련 평가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키 위해 신용평가에서 우량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업체는 기계장치 비율이나 연구개발비를 판정결과를 각각 1등급씩 상향 조정토록 했다.

조달청은 해당업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안에 결산서를 근거로 한 신용조사서로 대체토록 하는 등 적격심사 행정소요일수도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다.

## 工場革新 5개년계획 수립

중소기업청은 공장혁신 5개년기본계획을 수립, 2천년까지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15개 전문 교육 및 지도기관을 육성하며 25개 업종별 혁신모델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또 규모별 중소제조업 공장혁신 전략을 마련, 2천년까지 600개 중소기업을 공장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같은 공장혁신전략은 생산, 품질, 환경, 설비, 기술, 인사, 재무, 마케팅관리등 전 부문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50%에 머무르고 자금, 인력, 판로, 품질, 기술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체제 출범으로 자금지원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현재 20점 정도인 중소기업의 공장관리 수준을 2천년까지 자생력확보 수준인 60점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5년동안 50인 이상 8,300개사중 3천개사업을 선정, 공장혁신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30% 이상 생산성이 향상된 600개 기업을 공장혁신 선도기업으로 지정,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등 연계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2천년까지 200억원을 들여 공장혁신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공장혁신 교육(5개), 지도(10개) 기관을 연차적으로 공인기관으로 육성·지도하는 한편 매년 6종씩 업종별 공장

혁신 추진모델 25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 자본재 200품목 국산화 지원

중기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은 자본재 분야의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 홈닥터방식으로 향후 5년간 200품목에 대해 국산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립기술품질원은 통산부, 중기청, 학계, 단체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홈닥터식 지원위원회'를 가동, 자본재 전략품목을 분야별, 품목별로 정밀분석, 국산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품질원은 올해 통산부가 자본재 전략품목으로 고시한 제품중 부품·소재를 대상으로 35개 품목을 선정, 외국 우수제품과의 경쟁력 평가, 국내 유사업체와의 기술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홈닥터식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기술원은 연 수입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과다품목, 품질성능 개선이 필요한 수입대항력 강화품목, 단기육성으로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수출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원은 전략품목 기술력 평가를 위한 외제시료(샘플) 구입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지원하고 국산화 개발업체는 통산부에서 품목당 20억원(연 7%, 3년거치 5년상환)내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한편 개발완료된 제품은 기술평가후 우수 품질마크(EM)를 부여키로 했다.

## 전기절연물제도 年末도입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기절연물 안정등록제도가 올 연말까지 도입된다.

전기절연물제도는 전기전자제품에 쓰이는 절연수지·플라스틱등 절연물에 대해 인증을 받아 등록해야 전기용품 형식승인시 절연물의 안전성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국내 생산 및 수입제품에 공히 적용된다.

이 절연물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관련업체의 등록부담을 높이고, 현재의 무분별한 외산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게 되는등 전기전자업체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국립기술품질원 및 관련업체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전기절연물 안정등록제도를 올 연말경에 도입, 예고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기술품질원은 지난해 전기시험연구소가 제출한 전기절연물 인증방법과 제도운영방안에 관한 용역자료를 토대로 시험방법·등록기간·등록처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절연물제도가 도입되면 열가소성합성수지·절연종이·테이프등 해당 절연물 생산업체가 등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등록만 하면 형식승인시 절연물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